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연극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연극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1차) 2024년 12월 3일(화) 14:00~18: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2024년 12월 14일(토) ~ 15일(일), 양일 간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구태환, 김은성, 양근애, 정범철, 황운기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은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발표작품과 예술극장의 <봄 작가, 겨울 무대> 무대공연작 중 호평받은 작품이 초연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2차 제작 및 재발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작품들이 보다 안정적인 작업환경에서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다양한 관객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극분야 2차 제작지원에는 총 11건의 사업이 신청하였습니다. 심의는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 심의는 지원신청서류 및 공연 영상을 전수해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는 신청단체와의 질의응답형 인터뷰를 통해 사업 전반의 사항을 세밀하게 살펴 지원작품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 사업의 심의 기준은 작품성(30%), 2차 제작의 타당성(30%), 예산편성의 타당성(20%), 기대효과(20%)입니다. 이 중 작품성은 신청작품의 예술적 수준뿐만 아니라 객관적 성과도 포함됩니다. 2차 제작의 타당성은 기획의도 및 제작방향, 참여 인력의 역량, 그리고 제작 일정의 타당성을, 예산편성의 타당성은 예산 편성의 구체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합리적 관리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본 사업 이후에도 해당 공연이 유통 확산될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상기 명시한 심의 기준에 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작품이 기획의도, 대본, 연출 등 모든 면에서 고른 수준과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지, 동시대 관객에게 연극적 향유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지, 향후 지속적인 레퍼토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심의위원 중 심의 대상사업의 구성원들과 과거 작업 이력이나 개인적 친분 등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심의회피 대상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차 제작지원 사업에 지원한 공연들은 기공연 당시 관객뿐만 아니라 평단의 고른 지지를 받은 작품으로 재공연을 통해 다시 무대에 오를 가능성이 충분한 작품들입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동시대 관객에게 소구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고 작품의 구조가 안정적이며 새로운 형식적 시도로 연극계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종 선정된 작품은 총 3편입니다. 선정된 작품은 지원서류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하게 그려나갔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사회적 현실의 문제를 연극적 미학으로 완성도 있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작품에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세 작품만 선정하게 되었지만, 아쉽게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이 지닌 가능성과 역량도 앞으로의 작업을 기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만 2차 제작의 특성상, 공연의 안정성과 내재적 완성도를 조금 더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지원>은 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정식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이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미 있는 공연을 다시 선보일 기회를 얻는 단체들이 많아지기를, 또 한국 연극을 대표하는 훌륭한 레퍼토리를 더 많은 관객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